

민간요법에 대한 한의사의 의식형태 조사연구

오세창 · 권영규 · 김광중*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Social-consciousness about the folk Remedies of Oriental Medicine Doctors

Se Chang Oh, Young Kyu Kwon, Kwang Joong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san University

On the ground of researches in social consciousness about the folk remedies, both of them, people and oriental medicine doctors, feel strongly the relativ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the folk remedies. But the folk remedy had not groped for proper adoption and not shared in the benefits actually. Therefore the oriental medicine doctors present a direct guide for use, instead of leaving people to use improperly. And the oriental medicine doctors are in need of making a guide for efficient use of the folk remedies at the existing disease types.

Key words : folk remedies, social consciousness of oriental medicine doctors

서 론

현재의 서양보건의료분야에서 두가지 큰 난점이 놓여져 있다. 하나는 대량의 未病환자가 존재하며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시시각각 질병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어떤 질병은 치료가 힘들다는 것이다.¹⁾ 이를 해결하는 데 사회는 부분적으로 한의학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은 未病을 서양에서 질병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 균형의 파괴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만큼 그리고 질병을 서양에서 보는 부분적 파괴로 인한 기능손상이 아닌 전체적 균형의 심각한 파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만큼 서양의학에서 주관점으로 삼고 있는 질병치료의 형태로 한의학의 위치를 세우게 되면 현재의 보건 의료분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한의학의 질병치료가 환자중심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대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 동양의 민간요법이 서양적 의식에 따라 질병치료를 단순 보조적인 의미로 인식된 바도 없지 않으나 올바른 사용의 이론적 기틀이 되는 한의학 입장에서 보면 민간요법을 학문적 인식에 있어서는 질병치료와 주체적 흐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²⁾ 한의학의 본초학 영역은 개개의 약물에 대한 민간요법적인 지식에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계는 이론체계의 완성과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민간요법에 대하여 방만한 자세로 일관하여 왔으며 결국 한의학의 뿌리 중 하나인 민간요법을 약화계나 자연요법계에서 서로의 고유분야라고 주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에서의 민간요법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민간요법에 대한 한의학적 역할의 당위성을 찾아보고, 한의계가 더 이상 민간요법에 방만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간요법에 대한 한의사의 의식형태조사를 살펴보아도 현재의 한의학 임상에서 민간요법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한의사의 민간요법에 대한 의식형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안심하게 시행할 수 있는 민간요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재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민간요법에 대한 한의사의 의식형태를 조사하여 실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민간요법의 활용모형을 제시하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개업하는 임상 한의사의 민간요법에 대한 의식행태를 조사하여 한방의료의 민간요법에 대한 책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 교신저자 : 김광중, 대구시 수성구 상동 156,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kwangj@kyungsan.ac.kr Tel : 053-770-2238
· 접수 : 2002/10/18 · 수정 : 2002/11/20 · 채택 : 2003/01/14

본 설문조사는 크게 두가지 대상집단을 위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과정을 거쳤다. 임상한의사가 인식하고 있는 민간요법의 비중과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1998년 6월27일 대구 한의사회 보수교육 현장에서 131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배부 - 수거 형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임상 한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구성항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환자로부터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여부와 관심정도, 그에 따른 조치나 참고정보, 장기치료에 따른 민간요법의 필요성, 민간요법지도의 도움여부와 치료효과와 방법, 그리고 민간요법 활용지침 사용여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처리분석은 평균, 빈도, 백분율, 그리고 χ^2 -검증으로 비교분석하였고, 통계처리는 SAS/PC+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에서 보면 성별분포는 남자가 91.6%, 여자가 8.4%이었고 연령별로는 35세미만이 48.9%, 35세 이상이 51.1%로 나타난다. 근무연수별은 5년이상 10년미만 45.0%, 10년이상 15년미만 26.0%, 5년미만 21.4%, 15년이상 7.6%순이었다. 환자관리형태별로는 침구한약 병행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84.7%이었고 침구위주 13.7%, 한약위주 1.5%로 나타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1)

일반적인 특성	구 분	실수(명)	백분율(%)
성 별	남자	120	91.6
	여자	11	8.4
연 령	35세미만	64	48.9
	35세이상	67	51.1
근무연수	5년미만	28	21.4
	5년이상~10년미만	59	45.0
	10년이상~15년미만	34	26.0
	15년이상	10	7.6
환자관리형태	침구위주	18	13.7
	한약위주	2	1.5
	침구한약병행	111	84.7

2. 환자로부터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여부

환자로부터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여부를 <표2>에서 보면 조사대상자 131명 모두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표 2. 환자로부터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여부 (N=131)

구분	실수(명)	백분율(%)
예	131	100.0
아니오	0	0.0

3. 환자들의 민간요법에 대한 관심정도

환자들의 민간요법에 대한 관심정도는 <표3>에서 보면 성별로 보면 관심정도가 높은 편이다가 여자에서 63.6%, 남자 50.8%로 타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35세미만이 54.7%로 35세이상 49.3%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연수별, 환자관리형태별도 관심 정도가 높은 편이 타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연수별로는 10년이상 15년미만 58.8%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15년이상 40.0%로 가장 낮았다. 환자관리형태별로는 침구한약을 같이 병행하는 한의사가 53.2%로 가장 높았고 한약위주 50.0%, 침구위주 44.4%순이었다(p<0.01).

표 3. 환자들의 민간요법에 대한 관심정도 (N=131)

일반적인 특성	구 분	상당히 높은편	높은편	보통	낮은편	계
성 별	남자	12.5	50.8	34.2	2.5	100.0
	여자	9.1	63.6	27.3	0.0	100.0
$\chi^2 = 0.832$ df = 3 sig = 0.842						
연 령	35세미만	14.1	54.7	29.7	1.6	100.0
	35세이상	10.5	49.3	37.3	3.0	100.0
$\chi^2 = 1.392$ df = 3 sig = 0.707						
근무연수	5년미만	10.7	50.0	39.3	0.0	100.0
	5년이상~10년미만	15.3	50.9	32.2	1.7	100.0
	10년이상~15년미만	5.9	58.8	29.4	5.9	100.0
	15년이상	20.0	40.0	40.0	0.0	100.0
$\chi^2 = 6.210$ df = 9 sig = 0.712						
환자관리형태	침구위주	5.6	44.4	50.0	0.0	100.0
	한약위주	0.0	50.0	0.0	50.0	100.0
	침구한약병행	13.5	53.2	31.5	1.8	100.0
$\chi^2 = 23.941$ df = 6 P<0.01						

4. 환자에게 민간요법 질문에 대한 조치

환자에게 민간요법 질문에 대한 조치는 <표4>에서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이론설명과 적용 가능성을 알려준다가 67.5%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는 적용가능성만 알려준다가 81.8%로 높았다.(p<0.01) 연령별로는 이론설명과 적용가능성을 알려준다가 적용가능성만 알려준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5세미만이 64.1%로 35세이상 62.7%보다 높았다. 근무연수별로는 15년이상만이 60.0%로 적용가능성만 알려준다가 높았다. 이론설명과 적용가능성을 알려준다에서 10년이상 15년미만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관리형태별로는 이론설명과 적용가능성을 알려준다에서 한약위주 100.0%, 적용가능성만 알려준다에서는 침구위주 55.6%로 나타났다.

표 4. 환자에게 민간요법 질문에 대한 조치 (N=131)

일반적인 특성	구 분	이론설명과 적용가능성을 알려줌	적용가능성만 알려줌	계
성 별	남자	67.5	32.5	100.0
	여자	18.2	81.8	100.0
$\chi^2 = 10.557$ df = 1 P<0.01				
연 령	35세미만	64.1	35.9	100.0
	35세이상	62.7	37.3	100.0
$\chi^2 = 0.027$ df = 1 sig = 0.870				
근무연수	5년미만	64.3	35.7	100.0
	5년이상~10년미만	62.7	37.3	100.0
	10년이상~15년미만	70.6	29.4	100.0
	15년이상	40.0	60.0	100.0
$\chi^2 = 3.137$ df = 3 sig = 0.371				
환자관리형태	침구위주	44.4	55.6	100.0
	한약위주	100.0	0.0	100.0
	침구한약병행	65.8	34.2	100.0
$\chi^2 = 4.207$ df = 2 sig = 0.122				

5.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참고하는 자료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참고하는 자료를 <표5>에서는 본초학 관련서적이 7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중 민간요법 관련서적 16.0%, 기타 입수 가능한 건강정보 9.9%, 시중 건강 관련 서적 3.8%로 순이었다.

표 5.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참고하는 자료 (N=131)

구분	실수(명)	백분율(%)
본초학 관련 서적	92	70.2
시중 건강 관련 서적	5	3.8
시중 민간요법 관련 서적	21	16.0
기타 입수 가능한 건강정보	13	9.9

6. 환자의 장기적 치료에 따른 민간요법 소개의 필요성을 느껴본 경험

환자의 장기적 치료에 따른 민간요법 소개의 필요성을 느껴본 경험은 <표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요법 소개의 필요성이 있었다로 대답한 군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있었다에서 남자가 55.8%로 여자 54.6%로 보다 높았고 연령에서는 35세이상 58.2%로 35세미만 53.1%보다 높았다. 근무연수별에서는 15년이상 70.0%로 환자관리형태에서는 침구한약병행이 57.7%로 가장 높았다.

표 6. 환자의 장기적 치료에 따른 민간요법 소개의 필요성을 느껴본 경험 (N=131)

일반적인 특성	구분	있었다	보통이다	별로 없었다	계
성별	남자	55.8	18.3	25.8	100.0
	여자	54.6	18.2	27.3	100.0
$\chi^2 = 0.011$ df=2 sig=0.99					
연령	35세미만	53.1	20.3	26.6	100.0
	35세이상	58.2	16.4	25.4	100.0
$\chi^2 = 0.441$ df=2 sig=0.80					
근무연수	5년미만	57.1	21.4	21.4	100.0
	5년이상~10년미만	49.2	18.6	32.2	100.0
	10년이상~15년미만	61.8	17.7	20.6	100.0
	15년이상	70.0	10.0	20.0	100.0
$\chi^2 = 3.216$ df=6 sig=0.7E					
환자관리형태	침구위주	44.4	22.2	33.3	100.0
	한약위주	50.0	50.0	0.00	100.0
	침구한약병행	57.7	17.1	25.2	100.0
$\chi^2 = 2.750$ df=4 sig=0.60					

7. 환자관리에 있어서 민간요법지도의 도움 여부

환자관리에 있어서 민간요법지도의 도움 여부를 <표7>에서 보면 일반적 특성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가 타군보다 높았다. 성별에서는 남자 75.0%, 여자 5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에서는 35세미만 75.0%, 35세이상 71.6%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연수별에서는 15년이상 90.0%, 환자관리형태별에서는 침구한약병행이 73.9%로 가장 높았다.

표 7. 환자관리에 있어서 민간요법지도의 도움 여부 (N=131)

일반적인 특성	구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
성별	남자	75.0	19.2	5.8	100.0
	여자	54.6	36.4	9.1	100.0
$\chi^2 = 2.196$ df=2 sig=0.33					
연령	35세미만	75.0	18.8	6.3	100.0
	35세이상	71.6	22.4	6.0	100.0
$\chi^2 = 0.265$ df=2 sig=0.87					
근무연수	5년미만	75.0	21.4	3.6	100.0
	5년이상~10년미만	74.6	18.6	6.8	100.0
	10년이상~15년미만	64.7	26.5	8.8	100.0
	15년이상	90.0	10.0	0.00	100.0
$\chi^2 = 3.340$ df=6 sig=0.76E					
환자관리형태	침구위주	72.2	22.2	5.6	100.0
	한약위주	50.0	50.0	0.00	100.0
	침구한약병행	73.9	19.8	6.3	100.0
$\chi^2 = 1.189$ df=4 sig=0.88					

8. 한의학적 치료와 민간요법 치료의 병행에 예상되는 효과

한의학적 치료와 민간요법 치료의 병행에 예상되는 효과를 <표8>에서 보면 일반적 특성 모두 효과적일 것이다가 높았다.

성별에서는 남자 67.6%가 여자 45.5%보다 높았고 연령에서는 35세이상 67.2%이 35세미만 64.1%보다 높았다. 근무연수별에서는 5년미만이 78.6%, 환자관리형태에서는 침구위주가 66.7%로 가장 높았다.

표 8. 한의학적 치료와 민간요법 치료의 병행에 예상되는 효과 (N=131)

일반적인 특성	구분	효과적일 것이다	보통일 것이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계
성별	남자	67.6	30.0	2.5	100.0
	여자	45.5	45.5	9.1	100.0
$\chi^2 = 2.948$ df=2 sig=0.22E					
연령	35세미만	64.1	32.8	3.1	100.0
	35세이상	67.2	29.9	3.0	100.0
$\chi^2 = 0.142$ df=2 sig=0.93E					
근무연수	5년미만	78.6	21.4	0.00	100.0
	5년이상~10년미만	61.0	35.6	3.4	100.0
	10년이상~15년미만	64.7	29.4	5.9	100.0
	15년이상	60.0	40.0	0.00	100.0
$\chi^2 = 4.531$ df=6 sig=0.60E					
환자관리형태	침구위주	66.7	33.3	0.00	100.0
	한약위주	50.0	50.0	0.00	100.0
	침구한약병행	65.8	30.6	3.6	100.0
$\chi^2 = 1.062$ df=4 sig=0.90					

9. 민간요법 지도에 관한 방법

민간요법 지도에 관한 방법을 <표9>에서 보면 거의 같이 전체적으로 한의학에 맞는 민간요법 활용지도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75.8%, 연령에서는 35세미만 76.6%, 근무연수별에서는 10년이상 15년미만이 85.3%, 환자관리형태에서는 한약위주가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민간요법 지도에 관한 방법 (N=131)

일반적인 특성	구분	단편적인 민간요법 활용지식 전달	한의학에 맞는 민간요법 활용 지도	서양의학에 맞는 민간요법 활용 지도	계
성 별	남자	20.0	75.8	4.2	100.0
	여자	18.2	81.8	0.00	100.0
* 2=0.522		df=2		sig=0.77f	
연 령	35세미만	18.8	76.6	4.7	100.0
	35세이상	20.9	76.1	3.0	100.0
* 2=0.325		df=2		sig=0.85f	
근무연수	5년미만	17.9	75.0	7.1	100.0
	5년이상~10년미만	20.3	76.3	3.4	100.0
	10년이상~15년미만	11.8	85.3	2.9	100.0
	15년이상	50.0	50.0	0.00	100.0
* 2=8.325		df=6		sig=0.21f	
환자관리형태	침구위주	16.7	77.8	5.6	100.0
	한약위주	0.00	100.0	0.00	100.0
	침구한약병행	20.7	75.7	3.6	100.0
* 2=0.921		df=4		sig=0.92	

10. 한의학적 증형에 따른 민간요법 활용지침 사용 여부

한의학적 증형에 따른 민간요법 활용지침 사용 여부를 <표 10>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활용을 고려하겠다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90.9%로 남자 59.2%보다 더 많이 활용을 고려하겠다고 나타났고 연령별에서는 35세미만 62.5%가 35세이상 61.2%보다 높았다. 근무연수별에서는 15년이상 80.0%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관리형태별에서는 침구한약병행이 62.2%로 가장 높았다.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의학적 증형에 따른 민간요법 활용지침 사용여부 (N=131)

일반적인 특성	구분	적극적 활용	활용 고려	그저 그렇다	활용 안함	계
성 별	남자	35.0	59.2	5.0	0.8	100.0
	여자	9.1	90.9	0.00	0.00	100.0
* 2=4.344		df=3		sig=0.22f		
연 령	35세미만	32.8	62.5	3.1	1.6	100.0
	35세이상	32.8	61.2	6.0	0.00	100.0
* 2=1.634		df=3		sig=0.65f		
근무연수	5년미만	39.3	57.1	3.6	0.00	100.0
	5년이상~10년미만	33.9	61.0	3.4	1.7	100.0
	10년이상~15년미만	29.4	61.8	8.8	0.00	100.0
	15년이상	20.0	80.0	0.00	0.00	100.0
* 2=4.898		df=9		sig=0.84f		
환자관리형태	침구위주	33.3	61.1	5.0	0.00	100.0
	한약위주	0.00	50.0	50.0	0.00	100.0
	침구한약병행	33.3	62.2	3.6	0.9	100.0
* 2=10.172		df=6		sig=0.11f		

고 찰

본 조사의 목적은 개업한의사들의 민간요법에 대한 의식행

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기존에 개업한의사가 민간요법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질병치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의료행위와 민간요법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 민간요법이 단순한 질병치료의 보조적인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입장에서 질병치료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의미를 담겨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요법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인체질병에 사용되고 있는 民間療法은 질병의 본을 다스리는 것도 있기는 하나 질병의 標를 위주로 다스리는 것이 많아 결국 민간요법은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일단 위급한 순간을 넘길 필요가 있는 경우나, 부분적으로는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활용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³⁾ 민간요법과 한의학과 더불어 사용할 때는 중증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방의 의료행위는 인위적으로 신체의 음양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것이나 신체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을 때는 이것이 부드럽게 받아들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신체의 흐름이 다르게 가고 있을 때는 인위적인 음양균형의 맞춤이 일시적인 상황으로 존재하다가 그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방건강관리에서 질병예방에는 양생이 효율적이며 질병관리에는 양생과 의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며 양생만으로는 건강증진에 따른 건강관리로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경증의 질병관리에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며 의료만으로는 건강증진에 따른 질병관리로 중증의 질병관리에까지는 큰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단지 중(重)증을 다스리는 데는 양생없이 의료만으로, 의료없이 양생만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생만으로도 중(重)증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비약되거나 의료만으로 중(重)증을 관리하는 비효율적이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에 한의사가 주체가 되는 한방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양생과 의료의 연계를 피하는 여건을 마련하면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에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4,5)}

임상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는 민간요법에 대한 임상한의사의 의식행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우선 임상한의사들이 환자로부터 민간요법에 대해 100%가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민간요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환자들의 민간요법에 대한 관심정도를 알아 본 결과 보통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환자들은 한의사들에게 자기의 질병에 대해 진찰을 받기 전에 주위의 권유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상당히 많이 민간요법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확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환자가 민간요법에 대해 질문을 해 오면 남자 한의사의 경우는 이론설명과 적용가능성을 많이 알려주는 반면에 여자 한의사의 경우 적용가능성만을 알려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민간요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경우 한의사들은 주로 본초화 관련서적을 거의 대부분(70.2%)을 참고하고 그 외에 민간요법 관련서적(16.0%)을 참고하는 것으로 보아 임상한의사들은 체계화 된 이론에 근거한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한의사들이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민간요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0%미만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환자치료에 있어 민간요법을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써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의학적 치료와 민간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함으로써 환자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임상한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민간요법을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90%를 넘고 있어 앞으로 민간요법에 대한 이론적·임상적 연구가 보다 상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민간요법의 사용에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같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중증에 도움되는 경우, 경증에 사용되는 경우,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 주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앙케이트조사와의 연계성으로 국민들의 의식과 연계된 사용방향을 지니고 있는 것과 한의사의 의식과 연계된 사용방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증형과 민간요법을 연결하였을 때 사례가 많은 이유와 사례가 없는 이유가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임상한의사를 대상으로한 의식조사에서는 환자들의 민간요법에 대한 관심정도가 아주 높은 편으로 보아 환자관리에 민간요법의 활용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모든 한의사들이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이의 질문에 대한 조치는 본초학 관련 서적을 주로 참고하여 이론 설명과 적용가능성을 알려주었으며 한의학적 치료와 민간요법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어 민간요법이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환자방향인 증형치료와 연계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한의학적 증형에 따른 민간요법 활용지침이 있다면 활용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민간요법의 형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사용면에 어울려 만들어져 있고 기존 한의사가 바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⁶⁻¹³⁾ 한의학계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민간요법을 증형치료와 연계된 형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민간요법에 대한 임상한의사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131명(남자 120명, 여자 11명)의 대구지역 한의사를 1998

년 6월 27일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임상한의사들이 환자로부터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는 100%가 응답하였으며 환자들의 민간요법에 대한 관심정도는 아주 높은 편이었다(남자 63.3%, 여자 72.7%). 환자들에게 민간요법에 대해 질문 받았을 경우 남자 한의사가 여자한의사보다 이론 설명과 적용가능성을 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남자 67.5%, 여자 18.2%). 민간요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경우 본초학 관련서적을 가장 많이 참고(70.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치료할 때 민간요법의 소개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있었다가 약 55%정도로 나타났으며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남자 한의사 경우 5.8%밖에 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가 민간요법을 의학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요법과 증형치료와 연계된 형태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참고문헌

1. 이기남 이선동, 전통한방예방의학, 서울, 성보사, 1995.
2. 이선동 김명동, 미병상태의 학문적 임상적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고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창간호, 1997.
3. 이재수, 한국한의학사, 대구, 도서출판우리, 1996
4. 고정희, 한의학 임상에서의 민간요법 활용방안연구 - 부인과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요법을 중심으로 -, 대구: 경산대 대학원, 1999.
5. 음식물을 바탕으로한 민간요법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 김광중, 서울, 동의생리학회지 통권18호, 1998. p. 87.
6. 김용한, 민간요법 5000년, 서울. (주)도서출판 시아. 1996.
7. 성낙기, 99가지의 민간요법, 서울. 행림출판. 1996.
8. 구본홍외, 한국민간요법대전, 서울. 금박출판사. 1987.
9. 임중 임근 지음, 민간요법건강학, 서울. 일월서각. 1991.
10. 안덕균, 민간요법, 서울. 대원사. 1991.
11. 이훈, 민간요법, 서울. 자유시대사. 1988.
12. 류상채, 기적의 민간요법, 서울. 건강다이제스트. 1994.
13. 존웨슬리 지음. 고달삼 편역, 민속건강요법, 서울. 태웅출판사. 1996.

<양케이트 조사표>

민간요법에 대한 임상한의사의 의식행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임상한의사들의 민간요법에 대한 의식과 행태를 조사하여 민간요법의 한방질환치료운동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료는 절대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디 성의껏 끝까지 응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한의원 또는 의료기관명			
주소			

* 다음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 예전에 귀하의 환자로부터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환자들의 민간요법에 관한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당히 높은 편이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아주 낮은 편이다.
- 귀하의 환자에게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귀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① 한의학적 이론으로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를 알려준다.
 ②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적용 가능한 경우는 알려준다.
 ③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금지시킨다.
 ④ 기타
- 귀하의 환자에게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귀하께서 주로 참고하는 자료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많은 순서대로 1, 2, 3 번호로 표시해 주십시오)
 ① 본초학 관련 서적 ()
 ② 시중 건강 관련 서적 ()
 ③ 시중 민간요법 관련 서적 ()
 ④ 기타 입수 가능한 건강정보 ()
- 귀하의 환자가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민간요법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아주 많았다. ② 있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없었다. ⑤ 전혀 없었다.
- 5번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께서 답한 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환자 관리에 있어서 민간요법을 지도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 만약 귀하께서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와 적절한 민간요법 치료를 병행한다면 예상되는 효과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①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② 효과적일 것이다.
 ③ 보통일 것이다. ④ 효과가 없을 것이다.
 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만약 귀하께서 환자에게 민간요법을 지도해야 할 경우 어떠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단편적인 민간요법 활용 지식을 전달
 ② 한의학적인 증형(예 : 寒濕帶下 - 숙.....)에 맞는 민간요법 활용을 지도
 ③ 서양의학적인 질환(예 : 트리코모나스 질염 - 참기름)에 맞는 민간 요법 활용을 지도
- 만약 한의학계에서 한의학적 증형에 따른 민간요법 활용지침이 만들어진다면 귀하께서는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② 활용을 고려하겠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활용하지 않겠다
 ⑤ 전혀 활용하지 않겠다
- 민간요법을 한의계에서 수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연구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귀하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

- 성 별 : ① 남자() ② 여자()
- 연 령 : 만()세
- 종 교 :
 ① 무교() ② 불교() ③ 기독교()
 ④ 카톨릭교() ⑤ 기타()
- 한의원 근무연수 : ()년
- 환자관리 형태 : ① 침구 위주() ② 한약 위주() ③ 침구 한약 병행()